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A Christian Critique of Socialism

조 성 표

머리말

지난 통합연구 6호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성서적인 비평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글은 이와 짝이 되는 것으로 자본주의와 함께 현대 경제체제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성서적인 비평을 하여보고자 한다. 사회주의체제는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일부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하며 본 저자 자신도 그 지식이 일천하여 참고문헌에 제시된 Donald A. Hay(1982)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는 우선 사회주의 전반에 대하여 개괄한 다음, 정부, 소유권, 계획, 자유, 일, 경제적 평등 등 주요한 주제별로 성서의 개념과 사회주의의 주장을 비교하여 비평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

사회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통제의 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형태는 공산주의로서 경제를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다. 두

번째 형태는 신막스사회주의로서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의 분석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용한 혁명을 제한된 계획에 따라 협동화하고 경제의 재정부문은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째 형태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의 분석을 거의 포기한 가장 온건한 형태이다. 이들은 기본 생산단위로서의 자본주 기업과 영리기업을 포기함이 없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이들 모두는 자본주의와 이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뿌리깊은 혐오감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공산주의(communism)

막스는 단순한 봉건사회를 산업혁명이 유산계급(자본의 소유자)과 무산계급(피고용 노동자)으로 분리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자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조업에서의 기술혁명과 자유교역의 발전에 따라 유산계급이 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산효율은 대규모의 기계화와 분업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은 자본의 집중과 축적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함이 있어 붕괴할 것이라고 마스는 주장한다. 첫째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익율이 낮아지고 이 하강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됨에 따라 생산공장이 문을 닫게 되며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는 자본주의는 본래 무산계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을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한다. 그러나 공장이 대규모화 되어 노동자들이 함께 일함에 따라 노조가 형성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노조는 처음에는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산업노조를 구성하여 사회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 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며, 노동자들은 혁명세력화 하여 공산혁명을 통하여 승리의 세계를 획득한다고 마스는 주장한다.

노동자혁명 후의 사회에 대하여는 마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문헌에 나타난 그의 견해는 혁명 후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다음 두 단계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얻고 유산자 사회의 원칙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장되며, 생산자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생산 도구를 통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레닌은 '사회주의'라고 칭한 바 있는데, 이 사회의 특성은 1848년 마스의 '공산당선언'의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

1.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 폐지
2. 누적적이고 단계적인 고율의 소득세
3. 모든 상속권의 폐지
4. 모든 이민 및 반역자의 재산 몰수

5. 국가은행에 의한 금융의 집중화
6. 통신 및 수송수단의 국유화 확대
7. 모든 사람의 노동에 대한 평등한 의무
8. 농업과 공업의 통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9. 공립학교에서의 모든 어린이의 무상교육

첫번째 단계에 뒤이은 두번째 단계는 좀 더 고도화된 상태로 레닌은 이를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식, 일에 대한 새로운 태도, 생산에 대한 새로운 기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지향한다. 즉 인간은 쾌락주의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이며, 일은 인간됨의 한 부분으로 개인의 잠재성을 개발시킨다. 이 때는 국가도 사라질 것이며 단지 보편적인 참정권이 행사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오직 물질적인 생산이 풍성하게 이루어 질 때 가능한데 레닌은 소련이 1980년 경에 가면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 신마스사회주의(neo-marxist socialism)

마스의 이러한 주장은 19세기 영국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으나 20세기의 달라진 상황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의 분석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는데 이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 사회적 배경은 대기업의 출현, 경영자의 영향력 증대, 노동자의 지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즉 자본축적 과정에서 대기업의 출현으로 경제체제 내에서 이들의 영향이 막대하게 되어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소유권과 자본 통제 관계가 미약하여지고 경영자의 지위가 격상되게 되었다.

필자소개



· 조성표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 과학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인회계사로서 대우중공업 예산과장대리를 역임했다.

1979년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구의 수성성서침례교회 집사로서 청년부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물질적 상태가 개선되어 19세기와는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신막스사회주의에서의 권력의 기초는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당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넓은 참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명의 필요성이 제거된다. 신막스사회주의에서의 중요한 목표는 대기업들을 국유화하여 이 기업들이 노동자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업과 노조 그리고 정부가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케 하며 노동자의 소외를 제거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유화 과정에서 기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과 보험 부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는 대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의 궁극적인 제재이며, 20 - 30개 정도의 대기업만 국유화 하면 여타 기업들은 이 기업들의 선도 기능에 의하여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부분에서 새로운 공기업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사회민주주의 전통 (social democratic tradition)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영국은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개입과 생산수단 소유자의 영향력 감소, 소유자가 아닌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에서 노동자의 우세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 문제는 더 이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더 이상 막스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 개혁에 대한 도덕적 동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중 대표적인 학자가 Crossman, Jenkins, Crossland 등이다. Crossman은 성장의 척도를 공정성과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정도에 둔다. Jenkins는 평등이 없는 곳에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다며 계급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부와 출생의 차이가 아니라 특성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Crossland는 인간의 시기심(envy)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발생하므로, 집단적 불만을 유발하고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는 이 시기심을 사회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전통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신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공동재화(common goods)를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노동자, 경영자, 소유주 간에 적대감보다는 협동하는 방향으로 작업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들은 인간의 기관들이 비도덕적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존재하므로 이들은 계속 감시하여 사회적 목표에 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술적, 조직적 성장의 결과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위험을 우려하며, 특히 고용에 대한 결정은 기관만의 이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큰 변혁 없이 세부적인 규제를 하는 사회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성서적 비평

이제까지 사회주의의 여러 유형들에 관하여 개괄하여 보았다. 이제 사회주의를 성서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데 있어서 다음 6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들 6가지 주제들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또는 이들만으로 모든 사회주의가 다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토론은 사회주의의 여타 특성들을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국 가(the state)

모든 사회주의 분석에서 국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국가는 적극적인 조직자로서 경제활동의 관리, 생산수단의 소유, 공공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서 주체가 된다. 막스의 공산주의 완성단계에서는 국가가 소멸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는 하나 이는 소멸이라기보다는 국가로부터 시민의 소외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1) 국가에 대한 성서적 개념

국가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은 아직 완전히 일치할 보지 못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의 한 측면 - 세상에 대한 그의 도덕적 통치와 질서 지움 - 으로 보는 것이다(롬 13:1-7).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는 창조시 또는 인간 타락 이후

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국가로 나뉘고 있지만, 이들 모두에 공통된 것은 국가는 인간사에서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성경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고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권위에 순복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레미야(29장),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마 22:21, 요19:11)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 하는 오류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본질적으로 나쁘다거나 악마적인 것으로 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국가는 무정부와 무법 상태의 방지라는 소극적 측면은 이미 위에서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시민들에게 정의와 창조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또한 갖는다. 국가가 불의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한 집단만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도도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역사에서 때로 그들의 통치자에게 붙여진 죄명이었다(아모스 2,4장, 사 1:10-26).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서 13장의 국가는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무서운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국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서의 개념을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국가의 개념에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 자체를 비난하여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특성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가 그것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서 볼 때 강력한 국가가 그들의 권력 사용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강력한 정부는 흔히 그 권력을 오용하는 경향이 있다. Niebuhr는 민주주의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상호 견제되기 때문에 권력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로 국가자체가 하나의 신으로, 사회에

서 선의 유일한 주관자로 숭배의 대상으로 세우는 어떠한 국가도 그것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헌신과 충성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판해야 한다. 파시스트 정부 그리고 많은 공산국가의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들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장들은 대개 무신론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경향을 띤다. 이러한 국가우상의 경우는 사회주의 이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주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

세째 우리는 사회주의에서의 계급적 편향을 비판하여야 한다. 국가는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의 증진자로서 사회의 모든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특정 계급집단만을 위한 당파적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과부, 고아 등 소외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집단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은 계급적 편향과는 구별된다. 막스가 19세기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움직여졌으며, 이것이 그의 분석에 대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단순히 노동계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과만 선호되는 것에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유권(the property)

사회주의는 종종 재산권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란, 소유주가 재산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대로 처분하거나 이용할 권리와 재산의 소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소유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재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성서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호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다음에 간단히 요약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창 1:26-30, 8:22, 마 6:25-32). 따라서 창조질서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needs)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특정 범위에 대하여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부여하셨다. 그러

나 이 통치권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적소유권 개념과는 달리, 충성된 청지기는 더 큰 재산에 대한 통치권(수탁권)을 갖게 된다(눅 19:11-27).

(2)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재산

재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재산, 소비재 그리고 생산재로 구분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마지막 생산재, 공공시설, 자연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성경의 가르침과 별로 상충되지는 않는다. 이 체제 내에서도 각 개인은 공장의 통제에서 기계의 작동에서 또는 토지를 돌보는 데서 그의 청지기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그 재량의 폭이 감소될 뿐이다. 그 재량 및 손해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효율의 차이는 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과연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가이다. 이를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임의로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서에서 게으른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충성된 종에게 돌리고 있는 점에 볼 때(마 25:28, 29)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하나님 뜻과 합치되지 않을 수 있고(예를 들어 무기 제조 등), 앞에서 본 바 있는 강력한 국가의 권력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하여 회의론을 갖게 한다. 특히 만물에 대한 소유주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인 데에 주목하여야 한다.

3. 계획과 효율(planning and efficiency)

일반적으로 효율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본주의체제가 효율적인가 사회주의체제가 효율적인가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성서에서의 효율의 개념에 비추어 사회주의의 효율성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성서에서의 효율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자연질서를 돌보고 이들을 식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나타나 있다(특히 창1:26-30, 2:15).

인간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소한 자원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경제적으로, 즉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존재한다. 경제학에서는 대개 효율을 주어진 목표의 관점에서만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목표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성서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가 유효 수요가 있는 다른 나라에 식량을 수출한다면,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을 주어야 한다는 성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2)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계획과 효율

자원 배분의 수단으로서 계획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1930년대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였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불가능하며, 사회의 요구가 총합적으로 반영되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상실되게 된다. 특히 경제 전체를 계획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극히 일부 항목만을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세 가지 모형을 예시하면, 중앙계획 기구에서 전체를 총합 통제하는 관료중앙집권 모형, 거대한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한 계량경제계획 모형, 부문간의 조정을 이용하는 선택적 분권 모형 등이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중앙집권적인 계획 및 통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분권화를 도입하고 있다. 분권화의 종류에는 정보의 분권화와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있는데, 전자에는 전달 및 계산의 오류와 고의적인 거짓말의 위험이 있으며 후자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유인(incentives)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자본주의의 일부 요소들을 도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Hayek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중앙통제에 대하여 분배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및 미래 소비, 사적 및 사회적 소비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은 민주적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의 바람을 잘 반영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4. 자유(freedom)

대개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성서 속에서의 자유의 개념과 사회주의내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1) 성서에서의 자유

성서에서의 자유는 대개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자유이다. 이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적인 비전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를 인용하신 바가 있다(눅4:18, 19). 둘째는 자유의지이다. 성서는 선과 악의 선택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진리에 대한 책임(롬1, 3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책임있는 도덕적 존재인 것이다. 세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있는 대리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인간관계에도 연장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행사하여야 하는데, 동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자유

솔제니친의 경고, 공산국가에서의 비공산당원에 대한 핍박 등의 예는 공산 정권이 각 개인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정권이 전체주의화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Hayek의 주장대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내에서는 정부가 전체주의화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즉 계획은 인간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일치되므로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산출량만큼 계획 및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에 비해 비참여자들의 행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5. 일 (work, 노동)

일은 그 체계의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일(노동)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본다.

한편 막스는 이러한 노동자의 역할을 임금 노예로 묘사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1) 성서에서의 일

이에 관하여는 지난 호에서 자세히 토의한 바 있어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과 함께 일도 죄에 오염되어 수고가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일의 본연적인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구현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i) 일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창2:3, 1:28, 2:15. 시104:21-23, 잠6:6, 살후3:6-13)

ii) 일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목적적이어야 한다. 다만 타락 후 저주의 결과로 일이 수고가 된 것이다.

iii) 일은 인간들이 모여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사회적 활동이다.

(2)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일(노동)

노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상은 노동에 관한 성서적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노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상은 노동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어야 하고 생계를 벌어들일 필요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분리로부터 발생하는 소외와 경쟁의 개념은 협동이라는 이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산자 계급이나 다른 엘리트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의 이상은 자본주의에 비하여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상이 사회주의에서 더 완전하게 실현되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중앙계획적 공산주의체제가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는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 직업을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실업이 감소한다. 사회주의체제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효

과적이나 사회주의적 생산이 소외를 감소시키고 노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유발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절망적임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자의 소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앙계획경제 및 사회민주체제에서의 국유화된 기업에서도 동일한 소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소외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노동자와 전문 경영인의 분리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기업이 관료적인 계획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또한 사회주의 이상에서는 노동의 도덕적 유인을 공공의 유익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기업의 업적에 따른 물질적 보상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도 자본주의체제의 대기업의 결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몇 가지 광범위한 결론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자는 통제받기보다는 경영자와 함께 통제의 책임을 공유하길 선호한다. 둘째 노동자의 참여는 노조와 같이 매개적 단체를 통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것이 더 좋다. 셋째 참여는 신뢰도, 참여자들의 개방성, 문제해결 전략, 갈등해결 수단 그리고 기업 내 의사소통과 같은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분야에서의 진보가 없는 형식적인 참여는 노동자의 소외와 좌절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6. 경제적 평등(economic equality)

물질적 불평 등의 존재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도덕적 비판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평등의 추구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의 주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성서에서의 경제적 평등

성서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평등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즉 모든 인간은 타락되었으며 구원받을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경제적 평등을 고찰하는 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평등은 소득의 분배에 관련된 것으

로서 이는 지난 여름에 자세하게 토론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특정한 기준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i) 모든 사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창2:16, 3:21, 레19:9, 10, 신2:19-22, 출22:26, 마6:25-32, 딤후6:6-10)

ii)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 한도가 있어 탐욕은 죄악이다.

(암 6장, 약 5장, 마 7:22, 엡 5:33, 딤후6:6-10)

iii) 자신의 통제하고 있는 특정 자원을 자신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요 6:5, 마 20장)

(2) 사회주의에서의 경제적 평등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주의적 이상에서의 평등은 성서적 평등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확실히 사회주의의 원천은 유대-그리스도교의 유산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인 절대빈곤의 타파를 강조하여 왔으며, 기회의 평등과 자원의 수익에 대한 임의적인 소비 권리를 부정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부와 출신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성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계급 사회를 이상으로 삼아 왔다. 사람의 삶은 그의 소유의 많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상품 숭배에 대한 막스의 비판과 생산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인간의 동경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사회주의체제가 이러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것이다. 첫째는 재산소득의 감축 또는 폐지를 통하여 개인적인 재산축적을 못하게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주요 부분과 기업이 국유화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적소유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본에 대한 세금과 특히 고율의 상속세를 통하여 대규모의 부의 축적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한 개인이 충실하게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게 청지기 직분을 행사한다면 그 사람이 많은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마 25:29). 그러므로 재산 자체에 목적을 둔 사회주의의 재조직은 부의 대규모 축적은 현명하게 관리

되지 못한다거나 이기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기회평등의 이상은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모든 책임있는 자리에의 접근은 그 과업수행에 대한 능력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등이란 결과에 있어서의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평등의 틀 내에는 개인들이 상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말한다.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하여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부여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적인 개인과의 금지, 어려운 자들에게 보조를 확대하는 적극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 좋은 정책이 되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Crosland가 예리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나 유산자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계급이익의 보호에 민감한 엘리트 계층의 발생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큰 약점이 이 신계급층(new class)으로서 사회주의의 이상의 달성이 현실에서는 무척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다.

세번째로 사회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회소비재에 대한 강조이다. 의료, 교육, 법률상담, 주택, 교통수단, 레크리에이션, 오락 등의 사회재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시민들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는 개인의 구매에 의한 지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불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여러 낭비와 부정의 위험이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당한 안전장치로 해결하여야 하지 다수의 필요가 소수의 부정적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적 평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은 불평등 특히 빈곤을 제거하여야 하는 데에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각자가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즉 각 사람이 최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의 준비는 2차적인 과업인 것이다. 예를 들어 율법에서도 모든 가족이 토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강조되며, 임

급 노동자나 극빈자에 대한 배려는 그 후에 고려되는 2차적인 배려였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맺는말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 초기인 19세기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반발로 이에 대한 혐오감에서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는 곧 몰락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 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유사한 진보주의의 함정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질투 많은 자매관계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19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의 여러 환경이 변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도 신막스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물론 신막스사회주의의 그리고 막스의 분석의 핵심을 거의 버리면서 적용을 시도했던 사회민주주의조차도 자본주의에 비하여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방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하려는 오늘날의 소련, 중공, 동구권의 경우는 이에 대한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고도의 공산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일단 자본주의가 도입되면 그 누구도 그 자체의 추진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변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사회주의가 성서에서 그 근원을 도적질하였다는 의심이 들만큼 그 이상은 성서와 유사한 면이 있었지만 이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타락에 따른 인간의 죄된 성품은 서로 도우며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상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죄성으로 희미해졌기 때문에 계획에 의하여 통제하고자 할 때 방대한 자료에 대한 처리능력의 한계로 실행이 어려운 것이다. 즉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이를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죄된 성품과 희미해진 지적 능력이 더욱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렇기에 우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다.

참고문헌

1. 대천덕(1989)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CUP) 증책자 시리즈(1)
2. 조성표(1990)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제3권 1호, pp. 15 - 20.
3. Goudzwaard, Bob(1979)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4. Griffiths, Brian(1984) “The Creation of Wealth: A Christian Case for Capitalis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5. Hay, Donald A.(1975)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 United Kingdom, Grove Books.
6. Hay, Donald A. (1982) “A Christian Critique of Socialism,” United Kingdom, Grove Books.
7. Heilbroner, Robert L. (1985)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 7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